

독일 초등학교 교육특성에 따른 교육역량 및 음악교육역량 관련연구*

함 희 주**

본 연구는 독일 초등학교교육에서의 교육역량과 그에 따른 음악교육역량에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교육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는 역량 문제를 독일 교육역량을 통해서 탐색함으로써 국제적 시각에서 교육역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 연구내용은 독일 초등학교 교육역량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자료로서 초등교육의 성격, 교육역량부분은 독일에서 적용하는 보편적 교육역량개념과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교육 역량, 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음악교육역량부분은 Klippert(1996)의 확장된 역량 개념을 적용한 음악교육역량, 교사의 역량 구조에 따른 음악교육적 적용범위를 제시하였다. 음악교육에의 적용 본 연구에 적용한 자료는 G. Lehmann & W. Nieke(2013)의 선행연구와 주정부간행물 등을 참조 하였다.

※주제어: 교육역량, 역량개념, 역량모델, 독일 초등교육제도, 음악교육역량,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제도적 특징
2. 교육역량과 음악교육역량

IV. 결 론

* 본 연구는 2012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 임.

**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I. 서 론

본 논문은 독일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탐색한 것이다. 역량은 미래사회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계한다. 따라서 역량은 국가나 특정단체 등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모국어능력, 외국어능력, 수학적 역량, 기초과학기술 역량, 디지털 역량, 학습 방법에 관한 학습, 대인 관계적, 다문화적, 사회적 역량 및 시민역량, 기업가 정신, 문화적 표현 등으로 제안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핵심역량은 일반적으로 능력을 세 가지 원리 즉, ‘양 방향으로 도구 활용하기,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로 정하고 그 안에서 역량 획득을 위한 세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오지향, 2012; 정진원, 2012).

교육역량은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아동이 미래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역량이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최근에 들어 교육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함희주 외, 2012).

역량 교육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교육을 통한 인성역량이 강조되듯이, 독일 교육에서 역량의 강화는 PISA의 결과에 따른 교육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이다(Staatsinstitut für Schulqualität und Bildungsforschung, 2006).

독일에서 역량(Kompetenz)은 용어상 전문성과 권능(능력)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김영래(2012, 39)에 의하면 독일 사회에서 사용하는 역량 개념은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목적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능력을 준비하는 필요성과 교육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이다. 레만과 니케(G. Lehmann & W. Nieke, 2013, 2-3)에 의하면 학교 교육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역량의 기본적 의미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다음 서술한 3가지 현상을 포함한다고 한다. “첫째는 ‘형식적 측면’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역량은 다음 단계의 교육을 위해 획득한 최종 학업 성취결과와 관계한다. 교사입장에서 역량은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수행능력과 관련된다. 둘째로 ‘습득된 능력’으로서 역량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학생에게는 특정교과 수업을 통해서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교사에게는 교수·

학습 실행에 필요한 교과 전문성과 모든 교육적 행위와 관련된다. 셋째로 ‘어떤 특징, 징표’로서의 역량으로서, 이것은 예를 들어 경연대회 등에서의 성공적인 수행, 학교생활에서의 성취목표 달성, 장래의 직업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해당된다.”

교육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하며 학교가 단지 전문 지식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교육정책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 예로 독일 초등학교교육에서 역량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 인성, 사회성을 교육의 핵심적 요소로 제시한 독일 교육은 비록 통독이후 변화되는 국가적, 교육적 상황이나 학생들의 국제학력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측면에서 볼 때 선진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정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 교육역량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자료로서 독일 초등교육에 관한 제도, 교육과정 편제 등과 교육역량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교육역량개념, 구조 등을 제시하였고, 독일 교육역량개념과 구조를 음악교육역량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의 응용, 내용, 방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 음악교육에 시사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정부간행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II.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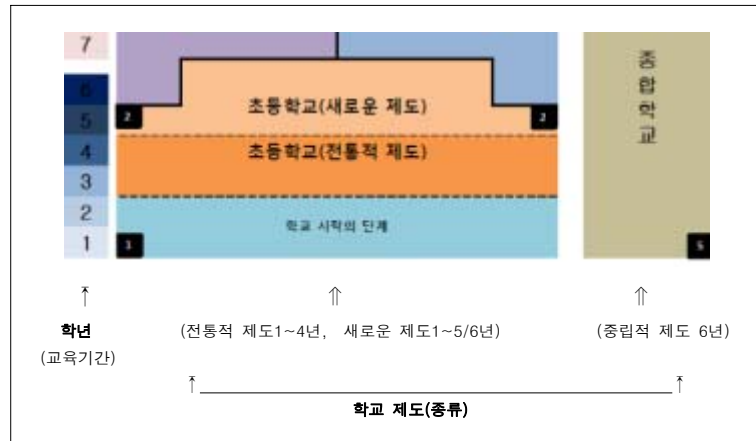
1.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제도적 특징

1) 초등교육의 제도적 성격에서 본 교육역량가능성

독일 초등학교 제도는 현재 전통적 제도와 새로운 제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¹⁾ 학교는 교육역량 실천을 위한 공적인 기관이다. 교육역량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독일 학교제도가 다양해진 원인은 1990년 통독에 의한 교육제도 개혁, 유럽연합국가의 탄생, 국제학력평가 결과에 의한 학교 구조 현대화 작업에 의한 것이다(함희주, 2009, 2012).

아래 [그림 1]에 제시 한 것과 같이 독일 초등학교제도는 고유한 성격과 운영 방법에 따라 모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림 1] 독일 초등교육제도와 학교 종류²⁾

독일 초등교육기간은 주 정책에 따라서 전통적인 4년제와 새로 도입된 6년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그림은 독일 일반학교 제도 중 초등학교 단계를 전통적 제도, 중립적 제도, 개혁적 제도를 종합하여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각 학교 제도에 따라서 학년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왼쪽 학년 표시를 7학년 까지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목표와 주요과제는 모든 주 정부와 각각의 학교에서 정한다. 교육의 주요과제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고,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다. 교육목표는 상급학교 교육의 위한 기초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수업진행은 학생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아동의 능력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한다. 학습의 유형은 주로 ‘놀이적 학습형태’로서 조직한다. 초등교육의 기대수준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잘 표현하는 능력, 경험하고 포괄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심동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획득에 둔다(함희주 외, 2013).

독일의 전통적인 초등학교는 그룬트슐레(Grundschule)이다. 그룬트슐레의 공교

2) 이 그림은 『세계의 학교 음악교육과정』(함희주 외 2013, 80)에 제시한 것 중에서 독일 초등학교 부분만을 잘라 재구성한 것임. 학교제도 속에 표시된 번호에 관한 해설은 참고한 문헌에 설명되어있어 여기서는 생략함.

육으로서의 확고한 이념은 오늘날 독일 교육의 근원인 평등교육이념으로서 ‘인간의 기본도야’(Grundbildung)이다(정혜영, 2007). 그룬트슐레 교육기간은 4년이며, 특징적인 것은 동일담임제와 학급제이다. 즉,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사람의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게 되며, 학생들도 같은 학급에 소속된다. 교사는 4년간의 담임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획득에 전제가 되는 아동 개개인의 적성, 성격, 재능, 발전가능성, 잠재력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상담³⁾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개인에 관한 모든 자료는 학생,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 끝에 작성하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근거로 사용한다(함희주, 2008).

중립적 성격의 학교제도는 80년대 이전 독일 사회당이 집권할 당시 새로 탄생된 것이다. 오전수업만으로 운영하는 전통적 학교제도에서 벗어나 오후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에 집에서 홀로 보내는 아동을 학교에서 관리하는데 있다. 중립적 제도는 원래 독일의 전통적 교육제도로써 정착한 엘리트 양성 목적의 교육기간인 4-3-4제도에서 벗어나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합쳐서 6-3-3제로 만든 종합학교체제이다. 위 [그림 1]에서 5번이 해당 된다.

종합학교(게잡트슐레 Gesamtschule)의 초등교육기간은 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학교는 킨더가르텐 1년 과정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3-3제로서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제외하면 한국의 교육제도와 유사하다.

개혁적 제도는 2002년 독일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개혁정책에 의해서 도입한 교육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독일 교육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피교육자 개개인의 능력 균등의 실현’이다. 이러한 취지아래 독일 교육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는 교육 구조의 현대화이며, 바로 학교제도의 개혁이다. 현재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행하는 주는 수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이다.⁴⁾

3) 독일은 장래에 대한 진로를 초등학교 졸업학년인 4학년 말에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이 상담은 개인의 능력, 흥미, 장래의 희망, 가정환경, 부모의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상담은 상급학교 진학과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4) 독일 학교제도의 특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시한 참고문헌에서 참조 할 수 있음(함희주, 2008; 함희주 외, 2012, 79-84).

2. 교육역량과 음악교육역량

1) 교육역량의 목적과 개념

초등학교교육은 인간 삶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획득에 있다. 역량교육의 목적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아동들의 미래의 삶과 관련된다. 독일 교육부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요소를 지식, 인성, 사회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개정에서 이러한 기본 요소를 반영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한다(Klieme, Eckhart 외 10인, 2007).

역량교육은 ‘아동 개개인이 미래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며 이에 대한 답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 제시될 핵심요소인 이 세 가지의 기본 역량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 초·중학교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여 각 교과에서 역량이 드러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함희주 외, 2013; 민경훈, 2007). 따라서 초등학교교육역량에서의 핵심역량도 기본적으로 지식-, 인성-, 사회적 역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 김영래(2013)는 최근 독일 교육계의 경향들에 관하여 다루면서 교육역량을 지식과 인성의 통합 쪽으로 하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지식과 인성의 통합은 자라나는 아동들이 장래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전제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상당부분 인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현실을 볼 때 또한 이러한 주장은 공감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역량은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 역량중심 교육에서의 지식이란 개념적 의미 보다는 내재적으로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역량은 모든 아동이 장래에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의 범위를 의미한다. 인성역량은 아동 개개인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개인적 요소를 인성으로 보고, 이 부분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인성역량은 교육의 최종목적으로서 자라나는 아동에게 장래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역량은 모든 인간교육은 결국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으로서 즉, 개인의 삶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은 성장 후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교육에 반영하여 도달 목표로 제시하

는 것이다.”(김영래, 2012, 39-40).

독일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육역량이란 개념을 바로 이러한 범위에서 본다면 사실 그동안 기본적으로 적용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단지 각 교육과정개정 중점에 따라 교육의 핵심목표를 지식, 사회성, 인성 등으로 삼아 교육정책에서 가감하여 강조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이 들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게 할지는 교육의 방향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 역량을 어느 한 요소로 강조하는 현상은 초등교육의 핵심역량을 어떤 근거로 구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의 초등학교는 학생에게 교육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성화 교육제도는 음악, 예술, 스포츠, 언어 등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점초등학교제이다. 예를 들어 음악 중점 그룬트슐레는 학생들에게 음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함희주 외, 2013). 즉, 모든 학생들에게 원하는 악기를 배우게 하는 등의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2)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역량

독일 학교교육의 특성은 주체적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있다. 이것은 각 주의 교육과정 편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요지에 반영되어 있다(함희주, 2013; 민경훈, 2007).

베를린주의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도야와 교육이다. 초등음악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의 기본 요지가 음악과에서의 도야 및 교육을 우선으로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 총론은 ‘초등학교에서의 도야 및 교육’으로 전제되어 있고, 각론은 ‘초등학교 도야와 교육을 위한 음악교과적기여’로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도야 및 교육을 위한 학습의 초점은 기본도야에 있다. 기본 도야에 필요한 요소들은 개성강화, 평생학습, 자기소견 및 관련 능력으로 제시되어있다(함희주 외 2013, 86).

음악교육과정에서 역량 관련 요소는 도야와 교육을 위한 교육목표와 도야와 교육을 위한 음악교과영역에 제시되어있다. 도야와 교육을 위한 학습목표는 바로 행동역량이다. 행동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세부 요소는 활동적 역량(내용, 과제, 문제점, 지식, 활동능력, 숙련 포함), 방법적 역량,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이다(함희주 외 2013, 86-87). 이 세부 역량은 초등과정에서의 도야와 교육을 위한 음악교과적인 역량획득에도 해당한다.

이와 같이 베를린주의 초등 음악과교육과정을 보면 역량교육은 현재 독일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주의 역량모델⁵⁾에서 제시한 행동역량과 그에 따른 세부 역량인 교과(전문적)적 역량, 방법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아역량과 유사한 내용과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역량모델을 비교하면 교과(전문)적 역량이 활동역량으로, 자아역량이 개인적 역량으로 명칭의 종류가 다른데 의미적으로는 같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베를린 주 음악과교육과정에 제시한 역량을 종합해 볼 때 독일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요소인 지식적, 인성적, 사회적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독일교육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교육기간은 1~4학년까지이다. 따라서 여기에 초등교육역량도 같은 교육기간 안에서 적용한다. 5~6 학년은 중학교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5~6 학년 음악과교육과정에서의 역량교육은 초등1~4학년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 교과 전문적 역량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학교 음악과교육과정 기본 영역 중 ‘역량획득을 위한 음악수업의 기여’에서 역량과 관련된 내용에 속하는 요소는 반영능력과 판단능력, 표현능력과 구현능력, 인지능력과 감각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음악교육역량을 위한 직접적 활동은 ‘음악 인지하기 및 이해하기’, ‘음악구성하기’, ‘음악에 대한 고찰’이다(함희주, 2013. 88).

다음으로 독일 중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과정은 중점 역량을 지식적-, 인성적-, 사회적-, 방법적-, 생활화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Ministerium für Schule, Jugend und Kinder der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3).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 스스로의 사고력, 판단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두고 수업과정은 과제를 해결을 위한 수행과정을 중시한다. 과제 수행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적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즉, 학습은 이러한 점을 잘 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자신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되도록 한다(김영래 2012, 44-45).

현재 독일 학교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역량을 베를린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을 비교해보면 종류의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교육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역량을 기준으로 볼 때 교과(전문)적 역량은 베를린주의 교육과정에는 활동적 역량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육과정은 지식적 역량이란 개념으로 제시

5)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역량모델은 본문 1. 3) [그림 2]에 제시되었음.

되어있다. 자아역량도 베를린은 개인적 역량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인성적 역량이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육과정은 생활화 역량을 하나 더 추가 하고 있다. 보편적 교육역량을 기준으로 베를린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교육역량을 비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독일 학교교육과정의 교육역량 종류

보편적 교육역량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교과(전문)적 역량	활동적 역량	지식적 역량
방법적 역량	방법적 역량	방법적 역량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아역량	개인적 역량	인성적 역량
		생활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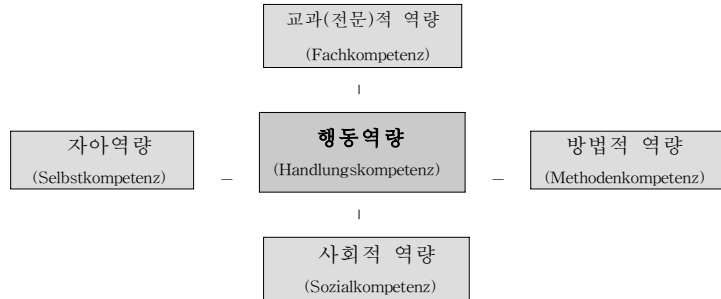
3) 교육역량의 구조(모델)와 종류

레만과 니케는 역량모델 연구에서 학교 발달은 개별학교의 발전과 연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역량은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관계되며 역량모델의 적용은 각 개별학교에서 적용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학교의 적용 취지에 맞게 스스로 구체화시켜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량모델에 의하면 학습이 개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활동적(행동적)이고 구조적이며 스스로의 목표를 실현하며 소통적인 과정으로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기구현과 책임성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되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역량획득은 개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며, 또한 같은 집단 안에서 능력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의식하여야 한다.”(G. Lehmann & W. Nieke, 2013, 2)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역량의 의식과 무의식적 관계성을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연결한 그림으로서 설명한 슈라츠(Schratz, 1999, 재인용 G. Lehmann & W. Nieke, 2013, 4)는 신뢰 할 수 있는 의식적 역량은 행함(Tun)과 이해(Verstehen)의 양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달성된다고 주장하였다.⁶⁾

독일 교육에서 적용하는 역량의 종류는 각 주의 교육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독일 학교에서 일반적으

6) 슈라츠의 그림은 수직적으로 역량에 대한 의식과 무의식적 관계성을, 수평적으로 역량과 역량부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제한된 지면관계상 제시하지 않았음.

로 적용하는 모델인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 역량모델⁷⁾을 제시한다.



[그림 2] 역량모델(G. Lehmann & W. Nieke, 2013, 2)⁸⁾

이 모델은 역량 중심을 행동역량에 두고 역량획득을 위한 세부역량을 교과(전문)적-, 방법적-, 사회적-, 자아역량으로 모두 네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 역량(Fachkompetenz)은 개별 교과학습에 필요한 내용적 전문성을 포함하는 전문적 역량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데, 레만과 니케(2013, 6)는 “지식(규칙, 개념, 정의), 연관성 알기, 특정 원리에 의해서 획득된 지식을 설득력 있게 연결시키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판단력을 이끌어 내기”와 같은 요소들로 제시 한다. 방법적 역량은 과제수행 중에 적용하는 모든 능력, 숙련, 관례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데, 구체적 활동은 “수행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학습을 계획하고 적용하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다양한 수행 기술과 기준 선택하고 적용하기(예를 들어 가설형성, 작업형식 등), 학습전략 발전시키기, 정보를 입수하고 저장하고 내용(Kontext)을 평가하고 공정성 확보하기, 문제와 문제 상황 인식하고 분석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해결방법 시험해보고 상황에 필요한 문제해결 전략 적용하기, 결과 구성하고 발표하기(발표기술, 시각화, 매체선택 적용), 사회적 역량은 협력하기, 책임감 인지하기, 연대적이고 관용 베풀기, 타인과 공감하기, 소통하기, 합의된 규칙과 질서 따라 행동하기,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기, 갈등

7) 이 모델은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주의 일반학교에서 적용하는 역량모델이다. 레만과 니케가 연구에 적용한 이 모델은 현재 독일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모델이며 여러 주에서 적용하는 역량의 종류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이모형에 제시된 네 개의 역량을 독일 학교교육에서 적용하는 교육역량으로 다루기로 한다.

8) 레만과 니케의 문헌(2013)에서는 이 모델에 대한 제목이 붙여있지 않은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량모델’로 제목을 붙였다.

을 극복하고 포용하기”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준비와 능력을 포괄한다(G. Lehmann & W. Nieke, 2013 6). 자아역량은 인성적 역량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에 속하는 내용들로는 “수행을 위한 준비,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평가하기, 의무감과 책임감 알고 행동하기, 자신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목표 세우기, 목표 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기, 신중하기, 자기신뢰와 독립성, 실패에 대한 극복능력, 타인과 상생하며 공존하기, 배려와 협력 받아들이기, 자아를 조절하고 통제하기”와 같은 능력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G. Lehmann & W. Nieke, 2013, 7).

4) 교육역량의 적용범위

교육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문헌상으로 발표된 자료들을 참고로 보면, 독일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역량 모델들은 교육 정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레만과 니케는 역량분석을 교육 구조적 측면, 학생의 측면, 교사의 측면으로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음악수업(교육), 교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 독립된 장으로 제시하였다.

(1) 학교에서 적용하는 역량 개념

독일 학교수업에서 학생의 행동역량은 우선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들이 달성하도록 하는 교육적 목표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적용하는 역량개념은 바로 학생관련 역량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 교육의 최종 목표로서 ‘평생학습 능력, 책임감 있는 행동, 공동체적 감각, 자립성, 논의(토의)와 비판 능력,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를 피력 할 수 있는 능력, 적용 가능한 지식의 습득’에 두고 있다(G. Lehmann & W. Nieke, 2013, 5). [그림 2]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 ‘역량모델’의 기본 정신은 이 기본 교육 목표를 토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 역량모델에 제시된 4개의 행동역량은 클리페르트(Klippert, 1996)에 의해서 학교수업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하게 발전되어졌다. 클리페르트가 역량을 획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확장된 학습 개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G. Lehmann & W. Nieke, 2013, 5).

- 내용적-교과(전문)적 학습: 지식(사실, 규칙, 개념, 정의 등), 이해(현상, 논거, 설명 등), 인식(관련성 인식하기 등), 판단(명제, 주), 기준판단하기 등

- 방법적-전략적 학습: 발췌하기, 평가하기, 구조화하기, 조직하기, 계획하기, 결정하기, 구상하기, 질서세우기, 시각화하기 등
- 사회적-소통적 학습, 듣기, 근거세우기, 논증하기, 질문하기, 토의하기, 협동하기, 통합하기, 대화 이끌기, 발표하기 등
- 정의적 학습으로: 자아에 대한 신뢰, 발전시키기, 어떤 주제나 방법에 대하여 즐거움 갖기, 동일화(동질성)시키기 와 변화시켜 발전시키기, 존중 감 세우기” 등이다.⁹⁾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역량은 학습구조와 학습개념에 대한 전제 조건과 부합되어 적절하게 조화된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또한 이 확장된 학습개념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토대로서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질적 능력과 교육을 위한 기초로서도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5) 음악수업에서 역량 개념의 적용

레만과 니케는 일반적으로 역량 모델을 적용하는 목적을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G. Lehmann & W. Nieke, 2013, 2). 이 두 사람은 지식 획득과 학습을 위해서는 더 상세한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클리페르트가 제안한 확장된 개념을 그 역할을 위한 요소들로 수용하였다. 단,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활용과 동시에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학습이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학습은 학습자의 동기화에 기초한 능동적인 과정이다, 학습은 개인이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이다,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화 한 어떤 것으로서 학습자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학습은 자기제어(Selbststeuerung)와 자기통제(Selbstkontrolle)가 요구된다, 학습은 소통적 행위 속에서 일어난다.”이다(G. Lehmann & W. Nieke, 2013, 6).

레만과 니케의 견해와 같이 역량 모델을 적용하는 목적을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림 2] 역량 모델과 클리페르트의 확장된 학습개념은 음악교육 역량을 위해서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클리페르트의 개념을 음

9) 본문에 서술한 클리페르트(1996)의 개념은 원래 레만과 니케의 문헌(2013, 5)에 <표 2>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표 2>에 연구자가 동일한 표를 사용하여 음악 학습개념을 제시하였으므로 중복된 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내용만을 서술형으로 번역하여 제시한 것임(저자 주).

악 학습에서 역량획득을 위한 행동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표 2> 클리페르트의 학습개념을 적용한 확장된 음악 학습개념

음악교육 역량을 위한 학습개념			
음악 내용 및 학습	음악 교수방법-수업전략	사회적-소통적 음악학습	정의적 학습
· 지식(음악적 사실, 규칙, 개념, 정의 등) · 이해(음악적 현상, 논거, 설명 등) · 인식(음악 관련성 인식하기 등) · 판단(음악적 명제, 주제, 기준판단하기 등) 등	· 음악수업을 위한 제재, 활동 등을 · 발췌하기 · 평가하기 · 구조화하기 · 조직하기 · 계획하기 · 결정하기 · 구상하기 · 규칙세우기 · 시각화하기 등	· 타인의 또는 타인과의 음악적 활동을 할 때 · 듣기 · 근거세우기 · 논증하기 · 질문하기 · 토의하기 · 협동하기 · 통합하기 · 대화 이끌기 · 발표하기 등	· 음악적 자아에 대한 신뢰 발전시키기, · 어떤 음악적 주제나 방법에 즐거움 갖기, · 음악적으로 동일(동질성)시키기과 변화 시켜 발전시키기, · 음악적 존중감 세우기 등
↓	↓	↓	↓
음악 교과적 역량	방법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아 역량

6) 교사의 역량과 역량모델

(1) 교사의 역량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독일은 교사역량과 관련된 영역을 수업설계, 수업에 대한 책무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등으로 적용한다. 독일 문화부 장관 협의회에서 작성한 대학교의 교육/사범계열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자격 시험기준(Rahmenordnung)을 보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역량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로 교사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Fachwissen) 관련 능력, 둘째로 학생보호와 관련된 직업윤리(Berufsethik), 셋째로 위의 두 조건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적 활동을 하기 위한 권한(Zuständigkeit)”이다(G. Lehmann & W. Nieke. 2013, 8). 즉, 제시된 기준을 보면 모든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개념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음악교사를 위한 역량은 이 세 가지 요소 이외에 음악적 능력이 더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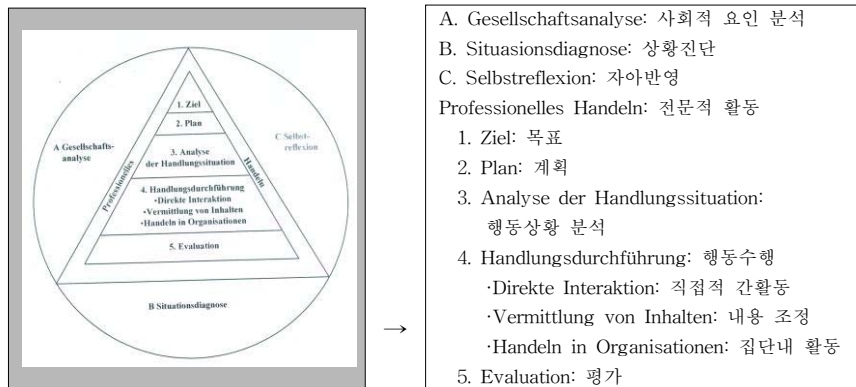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기준을 토대로 음악교사능력을 위한 역량개념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 독일교사의 일반적 역량과 음악교사의 역량개념

독일교사의 일반적 능력을 위한 역량개념	음악교사 능력을 위한 역량개념
· 수업설계 능력 · 수업에 대한 책무성 · 특정한 과제나 직업윤리와 관계된 업무 수행 권한	· 음악적 특성을 반영한 수업설계 능력 · 수업에 대한 책무성 · 특정한 과제나 음악교사로서의 직업윤리와 관계하는 업무 수행 권한 · 음악연주, 창작, 지식 등의 전문적 능력

(2) 교사의 교육역량 구조모형

교사의 전문적 활동을 위한 역량은 <그림 3>에 제시한 구조 모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교사를 위한 교육역량 구조모형(G. Lehmann & W. Nieke. 2013, 14)¹⁰⁾

모형의 구조는 내용적으로 교육역량을 구성하는 4개의 핵심적 요인인 사회적 요인 분석, 상황진단, 자아반영, 전문적 활동의 상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역량 모형 안에서, 중앙에는 전문적 활동(professionelle Handeln)

10) 이모형 안에 제시된 내용요소들은 원래 독일 주 문화부 장관 협의회 주관으로 규정한 교육/사범계 대학교의 교사교육과정과 교사자격시험 표준이다. 원형 모형은 레만과 니케가 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옆에 네모안의 제시한 한국어 번역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제시한 것임(저자 주).

영역이 있고 그 주변을 사회적 분석(A), 상황진단(B), 자아반영(C) 이 감싸고 있다. 이 세 요소들은 행동계획과 행동 수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레만과 니케는 각 영역에 제시된 요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문적 활동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행동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립되면 행동수행이 이루어진다. 행동수행을 통해 직접적 간 활동, 내용 조정, 집단 내 활동을 거쳐 평가의 단계로 진행한다. 사회적 분석(A)은 목표설정을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즉, 해야 하는 것(Gesollte)과 원하는 것(Gewollte)이 명백하게 반영한다. 사회적 분석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철학적 또는 도덕적으로 접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분석이 전문적 교육적 판단을 위한 철학과 목표설정을 결합(융합)시킬 수 있도록 교육철학적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레만과 니케의 주장이다. 상황진단(B)은 전문적 판단을 위해 다음 세 가지와 관련된다. 행동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근접방법, 행동수행을 위한 감시 장치, 평가 기초로서의 활용이다. 자아 반영(C)은 교사 개인적 역량과 관계되는 가치관, 전문가적 판단, 자기조절능력 등의 반영이다.”(G. Lehmann & W. Nieke. 2013, 13-14).

(3) 교사 역량기준과 음악 교육적 범위

교사 역량 기준은 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전문적 활동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사역량기준을 통해 음악 교육적 적용 범위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음악 교육역량과 관련된 세부 영역과 활동은 기본적으로 음악교과의 전문적 요인과 교사 역량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과의 상호관계성 안에 있다. 이 구조 모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역량획득을 위한 핵심영역인 사회적 요인, 상황진단, 자아반영의 세 가지 영역은 실제 적용을 위해 전문적 활동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 모형에 제시된 각 영역과 수행활동을 음악교과적인 범위로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① 사회적 요인 분석(Gesellschaftsanalyse): 음악교육에서 역량획득에 필요한 사회적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이것은 교육적 과제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음악 교육적 과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요구나 제안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규정되며, TV 와 라디오를 통한 대중매체교육(미디어교육)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발전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적 과제들은 교수법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역량을 통해서 달성하는데, 즉 학습이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과정과 서로 다른 음악 예술적 견해들에 대한 대립이나 이러한

견해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 등으로 일련의 간 영향력 안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② 상황진단(Situationsdiagnose): 교육적 행동상황 진단을 위한 표준은 다양한 전제에 의해서 만들게 된다. 레만과 니케는 대표적인 상황진단 분석으로 학교교육학 영역에서 알려져 있고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수업설계를 위한 검증된 가설(전제)인 베를린 술레(die Berliner Schule)에서 사용하는 교수법 분석을 예를 들고 있다(Heimann, P./Otto, G./Schulz, 1965, 재인용 G. Lehmann & W. Nieke. 2013). 이 교수법에 의하면 사회학자들의 주장은 ‘사회적 환경에서 행동상황을 야기하는 조건들을 분석하여 교육역량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포괄적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인류학자들의 주장은 ‘수업을 위해 발달심리학적으로 내세워진 조건들을 주제화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가설은 상황진단을 위한 하나의 영역별 표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리만과 니케는 베를린 술레의 교수법적 분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한 신체적, 심리적, 공간적, 간 활동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모두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공간적 요인 등과 학생과 다른 학생들, 교사, 대중매체 등과 상호 관련된 간 활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진단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직접적으로 개인과 또는 간접적으로 전문적 수준의 교육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황진단은 교육적 맥락 안에서 종종 체계적이지 않거나 직관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G. Lehmann & W. Nieke. 2013, 10-11). 특히 이점은 음악교육측면에서 볼 때 음악적 활동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중시할 수 있다. 음악교육 역량을 위한 상황진단은 음악적 능력 습득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핵심 상황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③ 자아반영(Selbstreflexion)

음악 교육적 역량 획득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자아 역량은 음악적으로 성장을 위한 요소로서 음악성과 관련한다. 음악적 능력은 타고난 소질, 성격, 욕구, 흥미 등과 학습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나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에 기초하여 자신의 고유한 음악적 세계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스스로 음악적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가에 관련한다.

④ 전문적 활동(professionelles Handeln)

음악교육역량을 위한 전문적 활동은 음악교과역량 획득을 위한 인지적, 기능적(심동적) 역량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 활동은 역량을 위한 목표설정, 학습설계, 행

동상황분석, 행동수행, 평가의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며, 이중 행동수행을 위한 세부 요소로서 직접적인 간 활동, 내용조정, 집단적 활동이 포함된다.

즉, 이와 같이 교육역량 구조에 속하는 영역들은 역량획득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적인 활동을 통해서 도달한다.

Ⅲ. 결 론

독일 학교교육은 역량 교육을 아동의 도야와 교육 전반에서 적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 학력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독일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이후 독일정부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화된 교육적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역량이다. 최근 역량중심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역량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표준(Bildungsstandard)이 필요하다. 교육표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이 역량 획득을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 역량은 아동이 음악을 느끼고, 행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교과에서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 하는 것이 음악교육표준이다.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정책에도 2009교육과정 이후 역량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으로 제시하고 모든 교육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음악 교육역량도 음악을 통한 인성, 창의력, 사회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이미 인성과 창의성은 강조되고 있다.

원래 ‘특정 과제 영역에 대한 권한의 관할적인 의미와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역량의 개념을 최근에 들어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은 즉,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교육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능력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역량은 이러한 교육적 목적 달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영래(2012, 46)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보다 적합한(표준적) 역량들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여,

- 2) 이러한 역량들의 단계적 형성을 수업 목표로 삼고,
- 3) 이러한 목표 역량들에 대한 달성여부를 세부적으로 평가 · 진단하며,
- 4) 그 결과에 따라 수업과정을 개선시켜나감으로써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자 함이다.”

결론적으로 역량이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의미하며, 교육역량이란 능력을 획득시키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적용하는 영역과 범위이다. 삶에 필요한 기본능력은 독일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인종들에게 필요하듯이 교육역량도 여러 국가에서 학교제도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독일교육역량을 주제로 한 것은, 독일교육이 교육 구조 현대화 정책에 의한 공교육의 선진화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구현하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다. 독일 교육역량에 반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능력, 책임감 있는 행동, 공동체적 감각, 자립성, 논의(토의)와 비판 능력,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를 피력 할 수 있는 능력, 적용 가능한 지식 의 습득 등의 요인들은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가 핵심문제로 떠오른 우리 교육에 시사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인성역량의 실현을 위한 음악교육 구조 개선을 위한 선진화 정책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래 (2012). **역량중심교육: 교육의 새로운 대안인가?** 한독교육학회,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공동연차 학술대회 2012년 11월 24일, 주최: 한독교육학회,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39-50.
- 민경훈 (2007). 독일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분석연구. **예술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5.
- 오지향 (2012). 역량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외국사례. **인성 교육과 음악교육**. 미래음악교육연구회 제1회 세미나 발표집. 55-56.
- 정혜영 (2007).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 서울: 문음사.
- 정진원 (2012). 교육과정에서의 인성역량강화 동향과 음악교과에서의 수용. **인성 교육과 음악교육**. 미래음악교육연구회. 제1회 세미나 발표집. 27-28.

- 함희주 외 (2013). **세계의 학교음악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함희주 (2012). 독일 베를린 주 고등학교 교육제도 및 음악과교육과정 탐색. **예술교육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18호), 173-187.
- 함희주 (2009). Bertelsmann Stiftung의 음악교육프로젝트 “Menschenbewegungen Zukunft gestalten”. 제40회 여름학술 세미나 발표집.
- 함희주 (2008). 독일 초등교육개선 정책과 이에 따른 음악교육 현황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35 집, 203-220.
- B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Unterricht und Kultus (2000). *Lehrplan für die bayerische Grundschule*. B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Unterrichtund Kultus
- Heimann, P. & Otto, G. & Schulz, W, (1965) *Unterricht- Analyse und Planung*. Hannover, In: Lehmann, G. & Nieke, W. (2013). Zum Kompetenz- Modell.
- Jugend und Sport Berlin/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Mecklenburg-Vorpommern (2004). *Rahmenlehrplan Grundschule*. Printed in Germany, Wissenschaft und Technik Verlag.
- Klieme, Eckhart 와 10인 (2007). Zur Entwicklung nationaler Bildungsstandard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BMBF). 김영래 (2012), 재인용
- Klippert (1996). *Methodentraining*. Beltz Verlag Weinheim, 재인용Lehmann, Gabriele & Nieke, Wolfgang(2013)
- Lehmann, Gabriele & Nieke, Wolfgang (2013). *Zum Kompetenz-Modelle*. <http://www.bildungsserver-mv.de/material/text-lehmann-nieke.pdf>, 검색일 : 2013, 11, 4
- Ministerium für Schule, Jugend und Kinder der LandesNordrhein-Westfalen (2003). *Richtlinien und Lehrpläne zur Erprobung für die Grundschule in Nordrhein-Westfalen*. Druck und Verlag: Ritterbach Verlag
- Schratz, M. (1999). *Matrix der Meta-Kognition*. Vortrag zum 9. Medien pädagogischen Gespräch der Bertelsmann Stiftung. 재인용 Lehmann, Gabriele & Nieke, Wolfgang (2013)
- Staatsinstitut für Schulqualität und Bildungsforschung (2006). *Kompetenz ... mehr als nur Wissen!*. Staatsinstitut für Schulqualität und Bildungsforschung

ABSTRACT

The study of educational competency according to German elementary school system and its correlation to music educational competency

Ham, Heeju

This study examines educational competency in German elementary schools and its correlation to music educational competency. As the basic formal data in figuring out the educational competency of German elementary school,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propose the related part of educational competency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educational policy, the diversity and characteristics of a system,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mpetency in German elementary education.

The formal data which is utilized in order to understand educational competency is presented with focus on the educational policy and educational curriculum settings of Bayern state and Berlin state in consideration of the German national educational features in which all the educational policies are put into practice diversely with priority given to state government. The part concerning music educational competency is presented with focus on the investigation of music educational competency reflected in the music education curriculum in Berlin/ Brandenburg state and Nordrhein- Westfalen state.

The literature data on all the competency concepts, models, and so forth which are appli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ior study of G., Lehmann and W., Nieke.

key words : educational competency, competency concept, competency model, music educational competency.

투고일: 2013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4년 1월 3일(1월 19일), 게재확정일: 2월 9일